

제2강 이삭 (언약의 아들) & 야곱 (이스라엘)

1. 언약의 아들 이삭

-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아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 →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태어난 언약 자손의 시작.
- 2)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

2. 이삭의 여정 요약

장소	성경	이삭의 여정
브엘세바	창세기 21:1-7	이삭의 출생
모리아	창세기 22:1-14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짐
브엘라해로이	창세기 24 창세기 25:19-28	리브가와 혼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랄	창세기 26:1-11 창세기 26:12-16	흉년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 및 아내 리브가를 동생으로 속임 100배의 수확의 축복
브엘세바	창세기 26:17-35	일곱번의 우물을 팸, 아비멜렉과 계약
헤브론	창세기 35:27-29	이삭의 죽음 (180세)

3. 주요 사건

- 1) 남다른 출생과 목숨을 건 순종
 - ① 아이를 수태 할 수 없는 어머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남. →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는 언약의 아들. (창세기 21:1-7)
 - ②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받쳐질 때 에도 어린양과 같이 순전하게 아버지를 따름. →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
- 2) 인간적인 연약함
 - ① 흉년으로 그랄 땅에 이주하였을 때, 아버지와 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함. 아내 임을 알아챈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선포함. (창세기 26:1-11)
 - ②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인 에서를 편애함. (창세기 25:28)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함. (창세기 27:1-4) → 리브가의 속임수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음.

3) 하나님의 축복과 맹세의 우물

- ① 흉년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한 후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하나님의 지시로 그 땅에 머무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축복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심 (번성한 자손과 축복의 통로) → 100배의 수확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됨. (창세기 26:10-13)
- ②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이주한 이삭.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4번이나 우물을 양보. 5번째 '르호봇'부터 다투지 않게 됨. 이후 브엘세바로 이주하여 두 번의 우물을 파게 되고, 세바의 우물 (최후 승리의 우물)을 파게 됨. →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간청하는 역사가 일어났음.

4. 순종의 모범 이삭

- 1) 성품은 온유, 겸손, 정직하며 농업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을 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았음.
- 2)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고, 제물로 받쳐질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으며, 주위 사람과도 다투지 않는 평화의 사람 이었음. →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1. 선택 받은 둘째 야곱

- 1)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60세에 얻은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야곱 (뒷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 2) (창세기 25:22-24)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 이후 12지파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됨.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림.

2. 야곱의 여정 요약

장소	성경	야곱의 여정
브엘라해로이	창세기 25:19-28 창세기 25:29-34 창세기 27:1-40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떡과 팔죽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음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취득
벧엘	창세기 28:10-22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 벧엘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음
밧단아람	창세기 29:1-30:43	20년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됨
갈르앗 (미스바)	창세기 31:22-52	도주한 야곱이 라반과 돌무더기 언약을 맺음
마나하임	창세기 32:1-2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남
압복 나무 (브니엘)	창세기 22:22-29	하나님과 씨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
세겜	창세기 33:17-34:31	세겜의 정착, 디나의 강간,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벧엘	창세기 35:1-15	이방 신상을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을 예배
헤브론	창세기 35:27-29	헤브론으로 귀향과 아버지의 이삭의 죽음
이집트	창세기 46:1-34 창세기 49:29-33	이집트로 이주 야곱의 죽음 (147세)

3. 주요 사건

- 1)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함
 - ① 들에서 돌아온 허기지고 피곤한 에서에게 떡과 팔죽을 주고 장자권을 받음. (창세기 25:29-34) → 에서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서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함.
 - ②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로 변장하고 별미를 준비해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음. (창세기 27:1-29) →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심.

*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7:28-29)

2)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 ① 뛰는 놈위에 나는 놈 '라반':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야곱은 14년을 라반을 위해 일함. 라반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함. 총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하였으며, 라반은 야곱의 품삷을 10번이나 바꿈. → 하나님은 더 교활한 라반을 사용하여 야곱을 훈련시키심. 하나님의 언약은 저절로 이루어 지지 않음.
- ② 하나님의 축복으로 라반에 집에서 부자가 되고, 덤으로 라반도 부유해짐 →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임.

3) 고향으로의 귀환과 형 에서와 화해

- ① 라반과 미스바에서 돌무더기 언약: 라반의 아들들이 부유해진 야곱을 시기, 야곱은 밧단아람을 떠나 도망가듯 고향으로 출발. 추격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선약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돌 무더기를 쌓음. (창세기 31:1-55)
- ② 압복 나루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과 씨름: 에서를 만날 것을 근심하며 가족과 일행을 모두 보낸 야곱은 홀로 압복 나루에 남아있던 중, 어떤 사람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 →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로 바꿔 주심.
- ③ 에서와 극적인 화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에서와 화해. 예물을 형님에게 드림. (창세기 33:1-16)

4)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벰엘

- ① 도피하는 여정에서 벰엘: 장자권을 얻은 후 외삼촌 라반으로 도피 하던 중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말씀하심.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

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 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11-15)

- ② 주변에 위협에 하나님을 의지하러 올라간 베델: 에서와 화해 후 세겜에 정착한 야곱. 그곳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속여 살육을 벌임. 주위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에게 위협을 두려워함.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심. 이방의 모든 신상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정결 작업) 하나님을 예배. (창세기 35:1-15) →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심.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창세기 35:5)

4. 12 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

- 1) 라반에 집에 거주하며 2명의 아내, 2명의 후처에게 12명의 아들을 얻음 → 12지파의 탄생. 민족의 모체의 탄생
- ① 레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블론
 - ② 라헬: 요셉, 베냐민
 - ③ 빌하: 단, 납달리
 - ④ 실바: 갓, 아셀
- 2)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림 →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야곱에 에서보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나은 것이 있는가?), 선택 받은 사람이 그에 합당할 때까지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야 함.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성품을 다듬어 가심.

